

은행

산업이슈

2018. 09. 13

전년 수준의 견조한 은행 대출 증가세 유지

News

은행의 대출 증가, 견조한 추세 유지. 8월까지 +4.6%YTD: 8월 은행의 가계대출은 (정책모기지론 포함 기준) +5.9조원으로 증가폭이 전월 대비 확대되었고, 기업대출은 +5.1조원으로 증가폭은 전월대비 소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중소기업대출이 5.0조원 증가해 2018년 들어 최대 증가폭을 보였으며, 자영업자대출을 제외한 순수중소기업대출이 2.5조원 순증해 연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전체 은행 원화여신 기준 YTD증가율은 4.6%로 2017년 8월의 4.5%, 2016년 8월의 5.1%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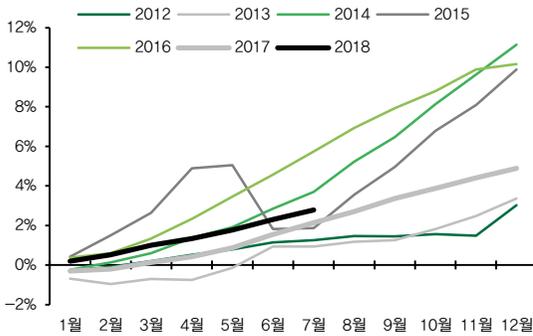
Comment

정책모기지의 퇴조와 견조한 전세자금대출 증가: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7월까지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주택담보대출 YTD 증가율은 2.8%로 전년동월의 2.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YTD 증가율이 4.6%에서 3.7%로 낮아진 것과 대조된다. ([도표 1, 2] 참조) 결국 가계대출 규제의 영향은, 주로 정책모기지에 집중되고 있으며 은행 고유 주택담보대출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대출도 5월 이후 증가폭은 전년보다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년 수준의 견조한 YTD 증가율 흐름을 실현하고 있다.([도표 3, 4] 참조) 여기에 대부분 정책금융기관 또는 서울보증의 보증부 대출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는 전세자금대출이,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분기 4조원 이상 증가하며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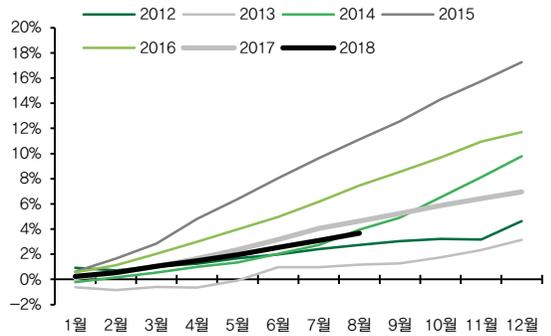
합리적 수준의 규제라면, 은행이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자영업자 대출 규제 강화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축소 등의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시행된 대출 규제의 영향은 주로 정책모기지의 축소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적으로 은행이 받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혹 전세자금에 대한 정책보증이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 등을 통해 은행이 대출에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나오는 대책이라면, 은행의 대출 성장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1. 은행 고유 주담대 YTD 증가율, 전년보다 높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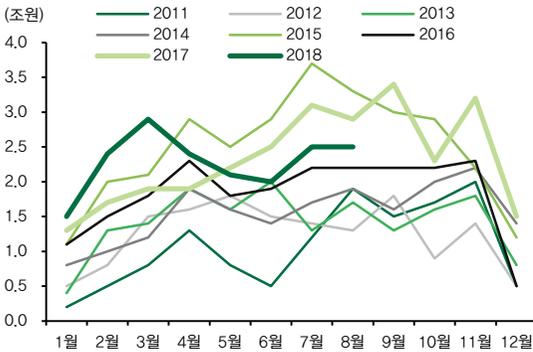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DB금융투자

도표 2. 유동화 포함 주담대 YTD 증가율, 전년보다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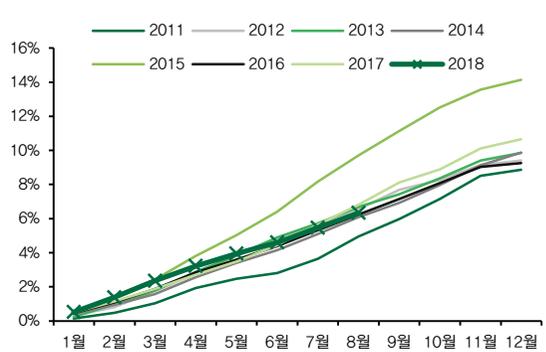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DB금융투자

도표 3. 자영업자 대출 증가폭,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자료: 한국은행, DB금융투자

도표 4. 자영업자대출 YTD 증가율 건조한 흐름 유지



자료: 한국은행, DB금융투자

Compliance Notice

- 자료 발간일 현재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들의 IPO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내용은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거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발행주식수 변동 시 목표주가와 괴리율은 수정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1년간 투자이건 비율 (2018-06-30 기준) - 매수(77.0%) 중립(22.3%) 매도(0.7%)

기업 투자이건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Buy: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Hold: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perform: 초과 상승률 -10%p 미만

업종 투자이건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Ov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Neutral: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미만